



NO.2146 _____

하늘 마음



제임스 티소트 <사도들을 쉬게 하시는 예수님>



입당송

보라, 하느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주님은 내 생명을 떠받치는 분이시다.
저는 기꺼이 당신께 제물을 바치리이다.
주님, 좋으신 당신 이름 찬송하리이다.

제1독서 예레 23,1-6

화답송

-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으라.
-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으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네. ◎
- ◎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네.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 저에게 위안이
되나이다. ◎

- ◎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 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
- ◎ 제 한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

제2독서 에페 2,13-18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

복음 마르 6,30-34

영성체송

당신 기적들 기억하게 하시니, 주님은 너그럽
고 자비로우시다. 당신 경외하는 이들에게 양
식을 주신다.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거나 아기를 갖고 싶지 않다면 또는 아프다면요?

생명권은 첫째이자 가장 중요한 권리입니다.

아이는, 비록 태어나기 전이라 해도,

이 권리를 갖고 있다는 데 사람들 대부분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태아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비인간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아기가 엄마에게 아픔과 슬픔, 고통을
불러일으킬 때가 그렇습니다.



1 성폭행으로 임신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성폭행을 당한 여성은 낙태를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폭행은 끔찍한 범죄입니다. 성폭행범은 사랑으로만 자유로이 내어 줄 수 있는 것을 강탈하고자 다른 사람에게 가혹한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여성이 성폭행을 당한 후 임신하게 됐을 때 낙태를 고려하는 것도 이해할 만합니다. 그 여성에게 끔찍한 일이 생겼고, 그녀 몸에서 자라는 그 아이는 계속 그 일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지만 낙태 또한 폭력 행위입니다. 우리는 성폭행의 공포만이 아니라, 낙태의 공포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 아이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 아이를 죽이는 것이 어떻게 성폭행범의 죄를 벌하는 것입니까? 엄마와 아이는 모두 무고합니다. 그들은 보살핌과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아이를 포기하고 입양을 고려하고 있다면, 그렇게 하는 데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야 합니다.

2 임신 후회할 때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과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맺고는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런 만남이 임신으로 이어진다면, 그들은 아이가 태어나지 않도록 막고 싶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둘의 나이가 아주 어릴 수도 있고, 부모가 아이를 제대로 보살필 수 없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요. 아니면 여자 혼자 이 상황을 마주하도록 남겨졌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아이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이는 다른 사람들처럼 살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사회는 부모가 아이를 죽이지 않도록 도와야 합니다. 아이의 엄마가 출산한 뒤, 아이를 입양시키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라고 여긴다면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맙게도, 이런 처지에 있는 젊은 엄마들을 돕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낙태는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계획하지 않은 아이고, 원하지 않았던 아이라 하더라도 아이는 여전히 인류의 중요한 구성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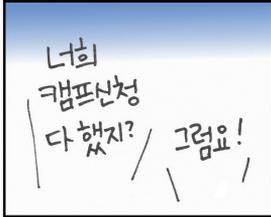
3 어머니의 생명이 위험할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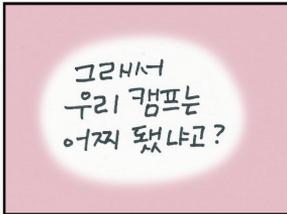
임신으로 산모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을 때는 어려운 상황이 생깁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리는 결정은 그것이 어떠한 것이라고 해도 산모와 아기 모두에 대한 존중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두 생명을 다 구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한 생명을 위해 다른 한 생명을 희생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자궁을 제거하여 산모를 살릴 수 있다면, 그 수술은 윤리적이 될 것입니다. 아이까지 살려보려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수술 과정에서 아이가 죽었다고 해도 그렇습니다. 아이의 죽음을 의도하지 않는 한 그 수술은 윤리적인 것입니다. 또한 태아를 구하기 위해 의학적 치료를 자발적으로 거부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엄마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에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떤 결정이든 모든 이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 늘 토대를 두어야 합니다.



날은 CYA

염현아 안젤라 | zzz-h@hanmail.net





구해줘 기도



중고등부 미디어부
문혜지 아셀라



오늘의 의뢰

가족의 안전을 위해 바칠 수 있는 기도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마티아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삼촌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았어요. 항상 유치원이 끝나면 삼촌이 데리러 오셨고, 초등학교 때도 삼촌이 등교할 때 학교까지 데려다주곤 하셨어요. 제가 부모님 다음으로 좋아하는 사람도 바로 삼촌입니다.

그런데 삼촌이 회사에서 일을 하시다가 기계에 손이 끼는 사고가 발생했고, 결국 이 사고로 삼촌은 손가락 하나를 잃게 되었고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게 되셨어요.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고로 삼촌은 많이 힘들어하셨고, 가족들 또한 깊은 슬픔에 빠졌어요. 최근엔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을 구하기도 어려워져 삼촌은 오랜 시간 일을 쉬게 되셨죠.



사진 출처 : Freepik

많이 힘들셨을텐데 늘 밝은 모습을 보여주셨던 삼촌이 이번에 울산에 있는 공업 회사에 취직을 하셨다고 해요! 일을 하시는 것이 오랜만이라 설렌다는 삼촌을 보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저는 삼촌이 또 다치게 될까 봐 걱정이 많아요. 이렇게 현장에서 일하시는 삼촌의 안전을 위해 바칠 수 있는 기도나 아픈 사람을 위해 바칠 수 있는 기도는 무엇이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오늘의 기도

안녕하세요, 마티아 친구!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삼촌께서 정말 큰 사고를 겪으시고도 긍정적으로 이겨내신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고 멋지네요. 그리고 삼촌을 걱정하는 우리 친구의 마음도 하느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예쁜 모습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친구에게는 <가족의 안전을 위한 기도>, 그리고 <병자를 위한 기도>를 소개해 주고 싶어요.

가족의 안전을 위한 기도

전능하신 하느님,
사랑하는 저희 가족 000를 위해
기도하오니 온갖 유혹과 시련에서 그를
보호하시고 사고의 위험에서 지켜주소서.

오늘 000가 만나는 모든 이를
축복해주시고 주어진 시간을 성실하고
기쁘게 지내다가 안전하게 보금자리로
돌아오게 해주소서. 아멘.

*출처 : <가정 기도 길잡이> 가톨릭출판사

병자를 위한 기도

○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앓는 사람에게 강복하시고
갓가지 은혜로 지켜 주시니
주님께 애원하는 저희 기도를 들으시어
(아무)의 병을 낫게 하시며
건강을 도로 주소서.

● 주님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고
주님의 팔로 감싸 주시며
주님의 힘으로 굳세게 하시어
더욱 힘차게 살아가게 하소서.
◎ 아멘.

*출처 : <가톨릭 기도서>

이 기도로 삼촌을 생각하는 우리 친구의 마음이 가득 전해지길 바라며, 저희도 삼촌의 건강을 위해, 그리고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항상 기도할게요!

복음자리

2024년 7월 21일 | 연중 제16주일 (농민주일)
(마르 6,30-34)

그들은 목자 없는 양들 같았다.(마르 6,34)

새겨보기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열심히 일한 사도들에게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쉬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들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너무나 지쳐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서 보시기에 사도들 스스로 자신들이 한 일이 하느님을 위해서 한 일인지 아니면 본인 자신을 위해서 한 일인지 살펴볼 시간을 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와중에 예수님께서서는 가엾은 군중들을 보시고, 실 틈 없이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혹에 흔들리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끔 유혹에 넘어가 하느님을 잊은 채 나 자신을 위해서만 봉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잠시 쉬며, 스스로를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캠프의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하느님의 자리는 어디인가요?

 **STEP 1.** 오늘 복음 내용이 뜻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STEP 2.** 내 삶을 오늘 복음에 비추어 생활 속 이야기를 써보아요.

 **STEP 3.** 주님께 바치는 나의 기도나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적어보아요.